불자 세상보기

FTA 발효, 최고를 준비할 때



이학노
동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거리에 늘고 있는 벤츠(Benz), 비엠더블유(BMW), 아우디(Audi) 등 자동차, 각 가정의 식탁에 오르는 마고(Margot), 보르도(Bordeaux) 와인 등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우리나라 이야기이다. 공식적인 FTA는 없었지만 EU는 이미 우리와 빠른 속도로 경제통합을 진행하고 있었다. 경제통합은 무역을 의미하고 투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EU는 세계 최대시장이고 우리의 제2위의 교역대상국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도 미국, 일본을 능가한 가장 큰 손이다.

7월부로 한 · EU FTA가 발효되었다. FTA의 효과로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유럽 자동차, 더 많은 프랑스산 포도주, 더 많은 유럽산 농산물과 의약품을 보게 될 것이다.

한편 우리 주력수출품의 관세 인하로 런던, 파리, 베를린 등에서 더 많은 현대차, 삼성 및 LG LCD TV, 그리고 석유화학제품을 보게 될 것이다. 한국과 유럽이 경제적으로 통합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한 · EU FTA는 칠레, 싱가폴, EFTA 등에 이어 우리나라로서는 6번째로 시행하는 FTA이다. 다른 FTA 파트너와 달리 EU는 27개 국가가 회원국인 거대한 경제공동체이다. 이들은 이미 다단계의 경제통합의 우여곡절을 겪은 국가들이다. 1952년 당시에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던 석탄과 철강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ECSC)를 결성하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협력의 영역을 확대하여 상품, 자본, 노동 및 서비스 이동의 자유화를 위한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통화동맹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한 유럽통화체제(EMS, ERM)를 거쳐 2002년부터 단일통화인 EURO를 사용하고 있다. 그간 구 소련 체제에 있던 동구국가들도 신규회원국으로 받아들여 이데올로기의 상처를 봉합하고 있다.

정치경제적으로 볼 때 EU는 우리에게 벤치마킹의 대상이다. 언어와 정부가 다른 27개 회원국이 평화를 위한 대통합을 진전시키고 있는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분단된 국토의 통일에 있어 별다른 진전이 없는 우리로서는 부럽지 않을 수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유럽은 세계 최강의 부품소재 국가인 독일을 비롯해서 기초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그리고 북구 등 저력이 있는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EU와의 FTA는 이들 국가와의 협력과 동시에 경쟁을 의미한다. 우리 상품은 이제 유럽에서 그리고 우리 안방에서 유럽 기업들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게 된다.

EU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EU 국가의 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상품을 만들고 적절한 유통망을 확보하고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EU는 경제공동체(Economic Union)로서 단일 관세율 체제를 가지고 있는 등 비교적 시장 진출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 EU FTA에서는 원산지증명(Certificate of Origin)과 관련하여 기관발급제가 아닌 자율발급제를 택하고 있어 기업이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을 하여야 한다. 즉, EU 지역으로 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 기업은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로 지정을 받아야 평균 5%에 달하는 관세인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2011. 6월말 현재 4300개에 달하는 인증대상 기업 중 인증을 받은 업체는 1400개에 불과하여 인증율은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루바삐 요건을 갖추어 인증수출자로 지정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U기업의 한국 투자를 유치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대일 부품소재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EU와의 FTA 발효를 계기로 경제, 사회 각 부문의 제도가 더욱 투명해지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간 우리 내부에서 통용되었던 관행이 유럽이라는 강력한 감시자에게 노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품 등을 만드는 것은 물론 시스템과 관행에서도 이제 명실상부하게 최고가 되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사부대중 칼럼

지혜가 된 어리석음



박경희
프러덕션 인트라미디어 대표

현자는 사물의 이치를 척 보면 알아 고통을 미리 피해간다지만 한치 앞도 보기 힘든 어리석은 중생들은 늘 당해봐야 그 고통 속에서 겨우 지혜 하나 터득한다고 한다. 나 또한 어리석은 중생 중에 한 사람이다보니 내 삶의 지혜는 늘 고통 속에서 피어난다. 올해로 오십을 맞으면서 그나마도 나이에 감사함이 드는 것은 바로 이런 생생한 지혜들이 모여서 어설픈 삶이나마 그런대로 오늘을 다소나마 편케하니 젊은 시절의 좌충우돌 어리석은 실수들은 이제 웃으면서 떠올리는 빛고은 추억이 되어버렸다.

반복된 어리석음을 딛고 얻은 안쓰러운 지혜 중 하나가 나만의 방식으로 더위를 식히는 법이다. 더워서 짜증이 나는 순간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일단 심호흡을 크게 한다. 이때 호흡은 들숨:날숨의 비율을 기본 1:2의 비율로 조절하고 그 호흡이 안정되면 다시 날숨의 길이를 보다 길게한다. 많게는 1: 5정도까지 내보내면서 숨의 길이를 길고 곱게 조절해나간다. 그러다보면 어느 순간 호흡에 집중하면서 일체 생각이 절로 놓아진다. 바쁘다, 가야한다, 해야한다, 뭐든 한다는 생각을 놓고 안정된 긴 호흡으로 몸을 이완 시키다보면 어느새 더위는 사라진다. 몸 안에 감춰둔 한기가 솟아나와 어깨를 오싹하게하고 등줄기에 흐르던 땀을 식힌다. 이쯤되면 한낮의 땡볕도 그저 따뜻한 솜이불 같다. 자기 최면의 상태인지 아니면 과학적으로 몸을 도구화하여 더운 외부 공기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몸안에서 돌려 나만의 최적 온도를 만들어낸다는 그럴듯한 이론인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나의 여름은 호흡을 통해 짧은 들숨과 상대적으로 긴 날숨 몇 번으로 더위를 잊게하니 아무리 더운 날씨라도 여름나기가 그리 어렵지않다.

이 최고의 지혜는 고등학교 때 터득한 것이다. 지각대장이란 별명을 들을 정도로 꼼지락거리는 습관이 있었다. 약속시간 앞에 늘 서두르게 되고 급한 마음에 연일 뛰면서 어느날 힘들지 않고 숨차지않게 뛰는 법을 터득하게됐다. 어리석은 습관이나마 이제는 생활의 지혜가 되어 나를 편케하니 세상에 좋다 나쁘다 탓할 것은 별로 없는 듯도 싶다.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언덕 꼭대기에 있었다. 습관적으로 나는 늘 등교시간이 임박해서야 집을 나섰다. 그 과보로 걷는 것도 힘든 언덕을 뛰어야만 겨우 지각을 면하는 고통을 매일같이 반복해야만했다. 그렇게 매일 아침 "조금만 일찍 나설 걸…" 뛰는 순간 매일같이 스스로를 자책하지만 돌아서면 어제와 같은 모습이었다. 언덕을 뛰는 내 모습을 보면서 습관을 고치느니 차라리 뛰면서도 숨차지 않는 법을 찾자는데 생각이 모아졌다. 안되는 걸 애써 하느라 매일 자책하고 우울해하며 나를 괴롭히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놓고 그런 내가 어떻게하면 몸과 맘이 편해질까를 찾아보자는 쪽으로 생각이 돌아가니 그때부터는 뛰는 것 하나하나에 관심이 가고 뛰는 자세까지 연구하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된 배경에는 당시 한창 유행했던 크리슈나무르티, 라즈니쉬 같은 명상가들의 책들이 있었다. '몸이 수행도구요, 삶은 방편'이라는 메시지와 그들이 가르쳐주는 호흡법에서 착안하여 뛰는 가운데 호흡을 맞춰가는 나만의 리듬을 개발하다보니 언덕을 뛰면서도 숨차지 않는 상태를 발견하게 됐다. 남들은 앓느니 죽는다고 조금 일찍 나서면 될 일 앞에 무슨 뛰는 법, 호흡법까지 연구해가며 지각 습관을 못 고치는가 어이없게 웃을 일이다. 하지만 지각습관 앞에 뛰는 고통을 늘상 당하고도 고치지 못하는 나에게는 정말 요긴한 발견이다. 그것을 시작으로 대학시절부터 요가 등 호흡과 관련된 여러가지 수행법이나 마음의 문제를 연구하는 명상서 등을 탐독하며 결국 참선에까지 관심을 이어와 불자로서 오늘을 살아간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인생 악재가 호재를 만든 웃지 못할 대사건이기도하다. 돌아보면 내가 주먹구구 좌충우돌하며 내 몸을 갖고 실험했던 학창시절의 경험은 나름의 마음훈련이 아니었나 싶다. 그후 불교공부를 하면서 그때했던 호흡법의 요체는 바로 마음공부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호흡은 방편삼아 이번 여름도 더위를 식히는 나만의 여름나기를 하고 있으니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아무리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마음을 이기지는 못하는 법'이라는 말도 실감이 된다. '마음의 고요를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서늘해진다[心靜自然凉]'는 중국의 옛 말 조차 맞는 말이라고 맞장구를 치게된다. 어리석음을 딛고 얻은 알량한 지혜지만 지난 30여 년 내 한 몸을 실험도구로 더위 앞에 재밌는 실험을 하듯 살아냈으니 이번 여름 또한 그리하며 또 한번의 마음공부를 해 볼 요량이다.

社說

짝퉁 석굴암 건립 안된다

경주시가 석굴암의 모형인 제2 석굴암 건립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제2 석굴암은 2001년 불국사와 문화재청이 추진하던 중 거센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었다. 이 사업은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석굴암 인근에 관람객을 위한 가짜 석굴암과 전시관 등을 만든다고 한다. 경주시는 지난 3월 최광식 문화재청장의 경주 방문을 기점으로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중이다.

현재 석굴암은 보존 등을 이유로 관람이 제한적이다. 경주시는 제2 석굴암을 건립해 석굴암 보존과 관광객의 불편해소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록된 석굴암을 보존하자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진품을 지키자고 석굴암을 찾은 이들에게 가품을 보여서는 안된다. 문화재는 진품일 때 가치가 있다. 이유야 어찌됐던 석굴암을 지척에 둔 채 가품을 만들어 보이는 것은 석굴암을 찾은 이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석굴암은 문화재이기에 앞서 불자들에게는 성보이다. 예경의 대상이다. 혹시라도 석굴암 보존을 핑계로 관람객 유치를 통해 관광수입이나 올리려 한다면 불교에 대한 모독이다.

제2 석굴암 건립 발상은 2011년 한국불교의 수준을 극명히 드러낸 예이다. 창조해 낼 자신감이 없다해서 이미 검증된 것만 재탕하려 들어서는 발전할 수 없다. 석굴암 보존이 문제라면 보수에 더 힘써야 한다. 짝퉁 사업을 추진 중인 불국사와 경주시는 멀리 내다봐야한다. 조계종 총무원은 수수방관하지 말고 제2 석굴암 건립을 반대해야 한다. 모조품을 만들어 진품을 숨기는 것은 민족문화수호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불자연예인 더 필요하다

불자 리처드 기어가 한국을 다녀갔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방한 내내 언론의 스폿라이트를 받았다. 리처드 기어의 자취대로 대중의 시선이 옮아갔다. 사진전 '순례의 길'이 열리는 서울 예술의전당에는 대중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에게는 어떤 큰 스님의 법회나 법문보다도 대중을 모으는 큰 힘이 있었다.

리차드 기어의 통도사 · 동화사 방문이 취소된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가 한국불교총본산인 조계사를 방문한 것만으로도 한국 불교는 큰 홍보 효과를 얻었다. 스타마케팅 덕을 톡톡히 본 것이다.

정신과 의사들은 연예인들에게 종교는 어떤 약보다 효과 좋은 명약이라고 말한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적 특성상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이면 뒤의 고독을 잘 다스리는데 종교가 큰 몫을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이 종교를 갖고 산다. 하지만 불자연예인은 적다.

이번 리차드 기어의 방한을 통해 우리는 불자연예인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했다. 그가 방한 일정을 통해 보여준 종교적 정체성과 동경심을 다른 불자연예인들로 이어가야한다. 불자연예인이 적다면 왜 적은지 이유부터 차근히 따져봐야한다. 불자연예인을 발굴 · 육성할 수 있는 인프라와 그들을 전법포교사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유명 연예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불교의 명암을 뒤바꿀 힘이 있다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화제의 신간
한국최초 계절로 풀이한 사주팔자
춘하추동

당신이 태어난 계절은? 직업은? 운명은?
흔히 3박자가 맞아야 대운길격(大運吉格)이라고 한다. 당신의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줄 운명의 3박자는 무엇인가?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일년의 기둥이 되고 있는 이 4계절은 각 3개월씩 나뉘어져 운명의 흐름이 각각 달라진다. 당신은 어느 계절에 태어났으며, 그 계절의 운세의 흐름이 당신의 운명에 어떤 작용을 할까?

사람을 깊숙이 꿰뚫어 보는 법 / 21C 신개념 행복 부자되는 사주팔자
■甲長慧印 이준용 지음 / 신국판 / 340쪽 / 정가 20,000원

명당 찾기의 참된 길잡이
한국의 재혈풍수 (상)권 · (하)권



실존의 명당, 재혈에 의해서만 그 실체가 밝혀진다!
- '한국의 재혈풍수' 상 · 하권은, 교구통맥법에 의지해서 태교혈을 찾아내는 재혈의 이법과 실제를 손에 잡히도록 알기쉬운 이해의 경로를 밟아 상술하므로서 난해하다는 재혈의 한 기법이라도 바르게 캐내려는데 중점을 두고 엮어내었다.

(상)권 鳳田 鄭日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76쪽 / 정가 30,000원
(하)권 鳳田 鄭日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12쪽 / 정가 30,000원

누·구·나·쉽·게·이·해·하·고·배·울·수·있·는
핵·심·사·주

1천여 년만에 탄생하는 새로운 정법 학설!!



이제 천기를 누설한다!!
기존의 사주학 학설로는 오직 개인의 숙명의 귀.천 만을 알 수 있고 미래 운명의 예측은 50여%에 미달하고 전혀 반대되는 운명을 예측하는 오류가 있다. 본 "핵심사주"는 1천여 년만에 사주학의 올바른 정법 법칙을 완성한 역작이다!!
왜 핵심사주인가,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최초로 공개되는 궁합의 비법!!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鄭炳玉 博士 지음 / 신국판 / 336쪽 / 정가 25,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이게 풍수다
신국판/성재권 지음/15,000원

육표학 핵심비결
신국판/송월 스님 지음/양장본/3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